

최상 시나리오는 '5월 중순 개막'

(12~13일, 16~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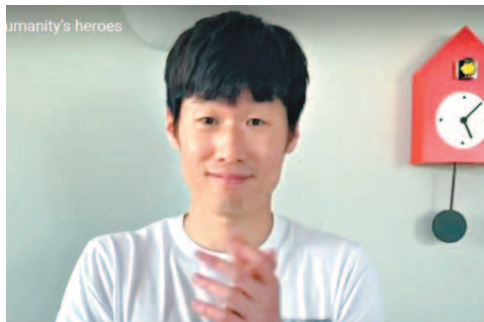
팀당 22경기씩·파이널R 5경기씩 5월중순 개막해야 27라운드 가능 후반기 몰아치기 피하는데도 유리

K리그의 2020시즌 개막일은 2월 29일이었다. 그러나 아직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뒤덮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K리그의 시계도 멈췄다. 일정 축소는 불가피해졌다. K리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어렵사리 개막했는데,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무리해 리그를 진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들쭉날쭉한 스케줄에 구성원들의 피로도만 가중시킬 수 있다. 스포츠의학 전문가들은 "스포츠에서

선수단 격리는 실전뿐 아니라 풀 트레이닝까지 취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2주 훈련을 건너뛰면 컨디션은 완전히 망가진다. 경기력 끌어올리기에 필요한 훈련까지 고려하면 최소 두 팀은 3주 이상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K리그는 내부적으로 5월 중순 개막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 연장하면서 일부 규제의 완화를 결정했다. 야외 스포츠는 '무관중' 등으로 위험을 낮추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다만 '무관중'이 아닌, '유관중'에 무게를 실고 있는 K리그는 초반 11경기는 포기하는 방안(K리그1 기준)이 유력하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K리그1은 5월 12·13일 12라운드를 치를 예정이었다. K리그1은 팀당 정규리그 22경기씩을 치

른 뒤 상(1~6위)·하위(7~12위) 그룹으로 나뉘 5경기씩 추가하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27라운드로 시즌을 치르는 안을 고민해왔다. 어린이날(5월 5일)이 포함된 황금연휴도, 주말도 아니라는 점이 아쉽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축구장도 예외가 아니라 관중수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바야흐로 밀집된 공간에서 전염도가 높다. 오히려 관중이 적은 주중 경기로 시작해 안전이 얼마간 확보됐음을 확인한 뒤 관중을 점차 늘려가는 방향이 긍정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몇몇 구단들도 이르면 5월 12일이나 이어지는 주말인 5월 16일 리그 첫 경기를 염두에 두고 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무작정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에 따라 리듬을 끌어올린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이사회를 열어 개막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K리그의 5월 중순 개막은 최악의 상황인 '후반기 몰아치기'를 피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6월까지 일체의 국제경기를 무기한 연기한 국제축구연맹(FIFA) 실무그룹의 결정으로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등 주요 A매치 시리즈가 전부 하반기로 미뤄졌다. 대한축구협회의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인 프로·아마추어 최강자를 가리는 FA컵도 K리그1·2 개막 이후 가급적 일정을 축소해 진행할 공산이 높다. A구단 관계자는 "모두가 답답한 상황이지만 기다림의 끝도 보이기 시작했다. 하루 확진자 수가 크게 줄었다는 부분이 특히 고무적이다. 곧 좋은 상황이 벌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박지성이 국제축구연맹(FIFA)의 코로나19 극복 응원 캠페인에 동참해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응원했다. 사진출처 | FIFA 홈페이지

"코로나와 사투 의료진 위해" 박지성, 영웅들을 위한 박수

FIFA 전·현직 축구스타 캠페인 동참 베키엄·라모스 등 이어 5번째로 등장

박지성(39)이 국제축구연맹(FIFA)이 진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응원 캠페인에 동참했다. FIFA는 19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축구는 인류의 영웅을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전·현직 축구스타 50명의 응원 영상을 공개했다. 이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며 종식을 위해 싸우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것으로, FIFA의 '위 월 윈(WeWillWin·우리는 이긴다)' 캠페인의 일환이다. FIFA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는 '인류의 영웅' 의료진과 여러 전문가들의 노력에 감사 표하기 위해 과거와 현재의 축구 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전했다. 이어 "축구는 고맙다. 축구는 당신을 기억하고, 지지한다"고 격려했다. 박지성은 1분24초짜리 영상에서 데이비드 베컴(잉글랜드), 세르히오 라모스, 제라드 피케(이상 스페인), 호우우두(브라질)에 이어 5번째로 등장한다. 이밖에 지네딘 지단(프랑스), 해리 케인(잉글랜드), 펠레, 카카(이상 브라질), 디에고 마라도나(아르헨티나) 등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참여했다. 최현길 기자 choi2@donga.com

뉴캐슬, 사우디 실권자와 인수 협상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새 주인을 맞이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마이크 애슐리 뉴캐슬 구단주는 아만다 스테이블리 측과 구단 인수를 놓고 대화중이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협상이 마무리되기까지 약 3주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스테이블리는 2008년 맨체스터시티 매각 때 핵심 역할을 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셰이크 만수르 왕자에게 맨체스터시티 운영권을 안겼다. 스테이블리가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와 손 잡고 뉴캐슬 인수에 뛰어들었다. 이 펀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소유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해부터 프리미어리그 구단 인수를 추진했다.

전통의 명문 뉴캐슬이 재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팬들도 많지만 왕세자 등극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인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예상 인수금액은 약 3억 파운드(약 4600억 원)다. 최용석 기자 tyong@donga.com

"토할 정도로 뛰는 산토스-기랑 속속 권창훈 최고 공격2선"

K리그 리빙 레전드 '마이팀 올더베스트' 4 수원 염기훈

'통곡의 벽' 마토-곽희주 수비라인 좌우풀백엔 홍철-오범석 펄펄 날아

염기훈(37·수원 삼성)은 K리그 최고의 베테랑으로 통한다.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를 거치며 '원클럽 맨'의 길은 걷지 않았으나 2010년부터 수원 유니폼을 입고 지금에 이르렀다. 경찰축구단에서 병역 의무를 다한 시기만 제외하면 꾸준히 '수원 맨'으로 활약했다. K리그 통산 371경기에서 73골·106도움을 올린 그는 수원에서 259경기(45골·73도움)를 소화했다. 염기훈은 조나탄(브라질-헨진 테다)을 수원 최고의 골잡이로 기억한다. 2016년 푸른 유니폼을 입은 조나탄은 두 시즌 동안 32골·5도움을 기록했다. "워낙 개성이 강해 선배들의 꾸중도 많이 받았지만 그 이상으



염기훈

로 깊은 정이 들었다. 골 감각과 해결사 능력, 폭발적인 스피드와 헤딩까지 모든 걸 갖췄다"고 회상했다. 공격 2선을 짚는 데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다. 수원에서 최고의 커리어를 펼친 산토스와 수원 유스 출신인 권창훈(프라이부르크)이다. 산토스에 대해선 "최고의 외국인선수"로 치켜세웠다. 경기를 뛰다 구토를 할 정도로 모든 힘을 쏟는 선수는 어디에도 흔치 않다. 실력은 물론 그

라운드 밖에서의 모습까지 프로페셔널의 전형이었다. 권창훈은 폭발성장이 강렬했다. 수원 유스가 인정받기까지 가장 큰 힘을 보탰다. "매년 기랑이 급성장했다. 단순히 출신을 떠나 실력에서도 역대 베스트11에 해당한다. 언젠가 수원으로 컴백하리라 믿는다." 중원은 김두현(수원 코치)과 사리치(보스니아)를 선정했다. 둘은 패스 마스터다. 예상할 수 없는 킬 패스에 상대 수비는 순식간에 허물어진다. "(사리치는) 현역 보스니아대표의 클래스를, (김두현은) 남보다 두세 수 앞서 플레이하는 느낌을 줬다. 경기의 질을 바꿔줬다"고 평가했다. 수비라인은 '통곡의 벽' 마토(크로아티아)와 곽희주(용인FC 원삼 감독)가 단연 최고였다. 팀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강했고, 남다른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후배·동료들을 챙겼다. "마토는 수비력과 제공권 장악이 대단했다. 수비수임에도 순도 높은 프리킥을 쳤다. (곽)희주 형은 말이 필요 없다. '수원의 올타임 베스트11'도 내

●염기훈이 본 수원 삼성 역대 최고의 베스트11



가 아닌 형이 뛰어야 한다"고 웃었다. 좌우 풀백으로는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꾸준히 함께 한 홍철과 오범석(강원FC)을 뽑았다. 팀이 어려울 때 종종 예기치 못한 한 방을 터트린 홍철은 염기훈과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다. 오범석은 몸이 가장 좋을 때 수원에 입단해 맹위를 떨쳤다. 염기훈은 수원 최강 골키퍼로 정성룡(가와사키 프론탈레)의 활약도 잊지 않는다. "항상 든든했다. 많은 수문장들과 함께 했어도 내게는 가장 강렬한 선수였다. 킥범위가 넓었고 정말 든든했다"고 설명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파리런 골에 이은 다양한 세리머니는 축구를 보는 재미다. 전북 이종호는 득점할 때마다 두 팔을 양쪽으로 펼친다(위). 부산은 선수 전원이 각자 손으로 턱을 받치거나 유니폼을 가리키고(아래 왼쪽), 울산은 팀의 상징인 호랑이가 포효하는 모습의 세리머니로 흥을 더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그라운드 세리머니, 어디까지 해봤니?

전설 이동국, 두팔 벌려 아빠미소 울산 선수들, 양손 세우고 "어흥" 부산은 유니폼 가리키며 의기양양

축구의 묘미는 골이다. 골 장면뿐 아니라 이에 기뻐하는 선수들의 세리머니도 팬들에게는 멋진 볼거리다. 울산 현대와 부산 아이파크에는 선수 개인이 아닌, 팀의 상징적 세리머니가 있다. 울산은 팀의 상징인 호랑이를 활용한 세리머니를 펼친다. 2017년 당시 울산에서 뛰던 이종호(현 전남 드래곤즈)가 득점 후 양 손을 호랑이 발톱처럼 세운 뒤 포효하는 세리머니를 했던 것을 시작으로 울산 선수들의 시그니처 세리머니가 됐다. 이후 경기 승리 시 단체사진에서도 빠지지 않는 울산 특유의 세리머니로 자리 잡았다. 부산은 단체 세리머니를 펼치는 팀이다. K리그2에 있던 2019년 누가 득점을 하든지 선수 전원이 카메라 앞에 모여 각자 손으로 턱을 받치거나 일렬로 서서 본

인 유니폼을 가리키는 포즈를 취하는 등 다양한 세리머니를 선보여 팬들의 보는 재미를 높였다. K리그의 '살아있는 전설' 이동국(전북 현대)은 득점을 올릴 때마다 두 팔을 양쪽으로 펼친다. 무난한 세리머니 동작이지만 '레전드' 이동국이 하면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통산 224골로 K리그 역대 최다 득점 1위에 올라있는 이동국의 득점은 곧 K리그의 역사다. '그라운드의 로망티스트'로 불리는 정조국(제주 유나이티드)은 항상 아내를 위한 반지 키스 세리머니를 펼친다. 개신교 신자로 잘 알려진 박주영(FC서울)은 득점 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세리머니가 전매특허다. 감스트의 관제탑 댄스를 아예 자신의 골 세리머니로 펼친 문선민(상주 상무), 흥겨운 춤을 추는 빈치성코(부산), 팬들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페시치(서울), 서포터에게 달려가 두 팔을 위로 벌리고 포효하는 무고사(인천 유나이티드) 등도 세리머니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선수들이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